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7호 【루계 제23364호】 주체100(2011)년 2월 16일 (수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동지,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김영철동지, 윤정린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녀성5중창과 남성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남성합창 《흰눈덮인 고향집》, 《장군별》, 《백두산바람 분다》, 혼성4중창과 남성합창 《2월의 환희》,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사랑의 봄빛》, 《릉라도의 금소방울소리》,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축원》, 남성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발걸음》, 《승리의 길》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시종 열정과 투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군대와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힘있게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한평생 인민을 위한 애국애민의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총진군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은 영원히 강성번영할것이다

우리 조국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인 일심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꿋꿋이 이어지고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거창한 설계도가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2월의 명절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김일성**민족의 끝없는 긍지와 영광을 심장마다에 절감하게 하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의 영원불멸성도,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찬란한 미래도 2월 16일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으로 우리 조국의 국력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김일성**조선을 누리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난국을 뚫고 전진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전도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령도자의 사상과 로선은 당과 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령도자의 필승의 기상과 세련된 령도는 천만군민이 백승을 떨치게 하는 원천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비약하고있다. 천만군민이 제국주의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일으켜나가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가 힘있게 확증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하나의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선군혁명의 단결의 중심, 사상과 령도의 중심이시며 장군님의 위대성은 일심단결의 근본원천이다.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강성번영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의 기상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력사는 반세기를 헤아리고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빛나는 그 년대기들에 우리 당과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조국이 최강의 국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였다.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절대적이며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 경축행사장들에서 높이 울려퍼진 일심단결의 환호성, 수령결사옹위의 함성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감사와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였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천만군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위업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실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총적목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불패의 강국건설의 보검인 선군정치방식이 확립되고 최악의 역경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륭성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국방위주의 정치체제가 튼튼히 확립되여 우리 조국은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강력한 군력이자 곧 국력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있어 우리 나라는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을 가진 정치사상강국, 자주의 최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우리 주체공업의 위용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도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온 위대한 계승의 력사, 반제반미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수호의 력사, 인민의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온 거창한 창조와 건설의 력사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우리 장군님께서와 같이 당대에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세인을 놀래우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령도자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강성대국에로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에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조국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여 그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행복의 창조자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무한한 헌신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풍모에서 핵을 이룬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로정을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으로 수놓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자신의 더없는 보람과 영예로 간직하고계신다. 인민의 리익을 최대로 우선시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이 민심을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끄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중시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끝없이 베풀어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은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장군님의 헌신의 최고정화이다. 그 성스러운 행로에서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쪽잠과 줴기밥》과 같은 혁명일화들이 수많이 태여났으며 인민들의 리상이 꽃펴나는 희한한 현실들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이며 세월이 흐르고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더욱더 초강도로 이어지는 불면불휴의 행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기어이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지고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바라던 리상과 념원이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에서 오늘의 대고조시대의 불굴의 투사가 지녀야 할 정신력의 최고높이를 보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백절불굴의 강행군정신을 따라 천만군민이 영웅적결사전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기에 강성대국승리의 날은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천만군민을 품어주고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스승,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랑과 믿음으로 불패의 혁명대오를 키우시고 일심의 천만대오를 이끄시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적사랑은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열화와 같은 사랑이며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뜻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키워주고 값높은 삶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대장정이다. 언제나 좌측을 보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우측을 보면 나의 인민들이 있으며 가운데를 보면 나의 일군들이 있다고 하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천만리길에서 우리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지고있다.

지금 온 나라에 타번지는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지펴주신 사랑과 믿음의 봉화이며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분출이다. 대고조격전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사랑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보답의 맹세를 다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은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진군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믿음과 사랑, 충정과 의리로 굳게 결합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원히 불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어버이로, 신념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열화와 같은 신뢰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질것이며 우리 혁명의 력사는 앞으로도 백승의 력사로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다져진 정치, 군사, 경제적잠재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며 **김일성**조선의 후손만대의 번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적진군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서 필승의 신심과 투지를 얻고 장군님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가 위대하고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굳건하기에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승리의 새 년대기를 펼쳐나가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이고 뇌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를 안고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고결한 충정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이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맞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오늘의 대고조의 하루하루를 수령결사옹위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우리 조국이 끝없이 번영해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일심단결과 막강한 군력,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마련된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통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어떻게 높아지고 강성대국의 밝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였는가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이룩하신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만대에 전해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고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업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전선길과 공장길, 농장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2면으로 계속

만민의 마음 끝없이 달려오는 흰눈덮인 백두산밀영고향집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에서 전통적인 로조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하실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데. 메드베제브

2011년 2월 16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동 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따뜻한 축하를 보내며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형제적조선인민을 령도하시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2011년 2월 16일 아바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수리아국방상, 로씨야정계인사가 대형꽃바구니와 축하장,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을 축하하여 수리아군대 및 무장력 부총사령관인 알리 무함마드 하비브 마흐무드국방상이 선물과 대형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과 대형꽃바구니가 10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이 축하장과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하장과 선물을 에쓰. 제. 우말라또바위원장이 11일 김영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들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들을 14일 외교단단장인 알레리 쑤히닌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박의춘외무상에게,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왕치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1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사무국대표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 일본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죠니 혼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가 1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사무국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를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사무국장인 우에끼 마사하루 단장이 1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14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4일 재로씨야동포 정일심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일본준비위원회 위원장 시미즈 스미꼬,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일본 에히메현준비위원회 위원장 나다 다까시, 일조우호촉진 교또부인회의 대표 스에모또 히나꼬가 14일 꽃바구니를 각각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16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16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김일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시며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대회장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조선로동당기폭에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2.16》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호보위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지, 주상성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최룡해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측동지, 오극렬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영웅들, 접견자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인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개회가 선언되자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워나가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1 면 에 서 계 속

우리는 무한대한 정력과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언제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여야 한다. 누구나 선군혁명의 길에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새길줄 아는 백옥같은 인간, 아글타글 사색하고 대담무쌍하게 실천하여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릴줄 아는 열혈의 인간이 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령도따라 대고조의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가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누구나 원대한 뜻과 리상, 드센 배짱과 담력, 난관도 웃으며 헤쳐가는 락관주의정신을 지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경공업부문에 마련된 생산토대와 잠재력은 대단하다. 모든 경공업공장들이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지방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그 어디에서나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최고의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과 련관부문들에서는 경공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뒤받침할수 있게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여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선언하고 올해에 또다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을 호소한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진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고 장군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과 주체의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사답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는 지금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김일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류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2월 16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경축하면서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오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앞날을 기약한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였습니다.

천출위인을 모신 이 경사의 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지니고 준엄한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자주시대를 선도하는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혁명투쟁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받들어나가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미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지난 수십성상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새겨안은 철리이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총화입니다.

인류사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류례없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인민대중을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희세의 위인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복잡다단한 력사의 풍랑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사에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업적으로 하여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최상의 특전이며 행운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우리 혁명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거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주체시대 혁명의 지도사상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습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울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시대와 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사상, 선군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합법칙성과 반제군사전선이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 조선혁명의 첨예한 정세,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고귀한 지침으로, 현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백승의 보검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무한대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사상리론적업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꾸려놓으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일찌기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심으로써 우리 당은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화되고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로 그 면모가 일신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건설과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여 조선로동당이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것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하나의 동지로 키우시였으며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에 기초한 군민대단합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핵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뭉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공고발전되였으며 이 일심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님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김일성**헌법을 채택하고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빛을 뿌리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함으로써 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되고 정치사상진지가 굳건히 다져진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강화하여오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승리의 새 력사를 펼치신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사에 특기할 업적입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대결이라는것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지구상의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도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힘이 돌려져 우리의 국방공업은 짧은 기간에 최첨단을 돌파하여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 우리 조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여 인민군대가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되고 우리 조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힘의 정책에 정의의 총대로 맞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에게는 미제의 강권과 전횡이 통할수 없으며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강조국건설에 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신것은 반만년민족사에 아로새겨질 불멸의 업적입니다.

조국수호전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과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과 과학기술중시로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며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혁명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창건 65돐을 맞이한 지난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정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하도록 하시여 전당적, 전국가적총공세를 벌려나가게 하신것은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하나의 력사적리정표로 됩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웅대한 목표와 전략전술, 방도와 묘술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각지의 단위들에 대한 력사에 류례없는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지난해 정초부터 마지막나날까지 온 나라를 종횡무진으로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벽두부터 또다시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격전장들에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십니다.

가시는 곳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꽃펴나는 자랑찬 현실을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더 큰 승리에로 고무격려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과 무비의 헌신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게 한 근본원동력으로 되였습니다.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졌으며 대계도간석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습니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드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교육과 체육, 문학예술분야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과시되여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쳤습니다.

실로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도 세기를 주름잡으며 번개같이 내닫고있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력사의 리정표대로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들을 집대성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심으로써 통일의 앞길에 전환적국면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주적이며 원숙한 대외정치활동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김일성**조선의 권위와 영향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두차례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것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운 력사적인 대장정이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민족만대에 아로새겨질 영원불후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이 땅우에 수령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시였으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을 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오늘 끝없이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 당과 혁명의 생명이라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당의 강령적지침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민족적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 높이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올해공동사설과 김철의 편지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며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전선전반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추동하는 일대공세를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자면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전당을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철로동계급의 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 떨쳐나서도록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며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외면하고 온갖 부당한 구실과 모략책동으로 모처럼 마련되였던 접촉과 대화의 기회마저 파탄시키면서 정세를 최악의 역경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자체를 전면거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대화를 파탄시키고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며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수십성상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보다 휘황찬란할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시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념원이 실현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펴날 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의해 한세기전 총대가 약한탓에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 나라가 오늘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음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장거였습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 나라의 지위에서 일어난 극적인 전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생명이며 선군정치를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야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한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백두의 붉은기높이 선군조선의 위용이 더욱 만방에 떨쳐지고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우러러따르는 만민의 흠모심이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경사로운 이 시각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천리강토에 조국해방의 서광이 밝게 비쳐오던 주체31(1942)년 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신것은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기약한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였습니다.

경사로운 2월이 있어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선군조선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자주시대를 선도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쳐올수 있었습니다.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태양의 위업을 이어오신 계승의 력사, 거창한 변혁실천으로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오신 영광의 년대기로 수놓아져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향도리념으로 빛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석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으며 수령, 당, 군대와 민중의 일심일체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습니다.

지난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이 다져지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 력사적사변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위대한 주석님따라 시작한 선군혁명위업을 기어이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승리떨치려는 이북의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철석같고 변함이 없다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두려울것도 못해낼것도 없다는 승리의 신심에 차넘쳐있는 이북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장엄한 뢰성으로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강성대국의 목표가 환히 내다보이는 직선주로를 따라 질풍노도와 같이 전진하고있습니다.

정초부터 정력적인 령도로 이북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민중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에서 우리 남녘민중은 선군조선에 펼쳐질 사회주의무릉도원의 화폭을 크나큰 민족적환희와 격동속에 그려보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지금 남녘의 각계 민중은 랭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려는 이북의 아량있고 성의있는 노력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기어이 끝장내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를 절감하고있습니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부신 대외활동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격변하는 국제정치흐름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진보적인류를 반제자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정녕 백승의 정치실력과 탁월한 선군정치로 민족과 시대를 자주와 진보에로 견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입니다.

백두의 선군령장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있는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매진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영원한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반제민전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정신무장된 사상과 신념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민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남의 군부호전세력들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이 땅에서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가셔내고 동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을 지탱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대세의 거세찬 흐름을 막아보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무모한 도전은 기필코 전민족과 세계평화애호력량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들은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책동과 북침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각계 민중의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겠습니다.

선군태양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자주통일과 강성부흥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확고한 신심과 투지를 안고 싸워나가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인 어버이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앞둔 올해를 기어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빛내이겠습니다.

이북민중에게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기 위해 류례없는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이민위천의 귀감이신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를 때마다 더욱 절절해지는것은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온 겨레의 간절한 소원이며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통일강성대국의 근본담보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0(2011)년 2월 16일 서 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백두의 기상 넘치는 선군조선에 《승리의 길》의 장엄한 노래소리가 메아리치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고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커다란 영광과 더없는 기쁨을 안고 맞이하였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시기에 맞이하는 2월명절의 이 아침,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진두에 서시여 새해벽두부터 엄동설한의 눈바람을 헤치시며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부풀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우러르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축복과 환희속에 탄생일을 맞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항일대전의 최후격전속에서 조국해방의 서광이 비쳐오던 주체31(1942)년 2월 1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것은 민족의 대통운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오로지 주체위업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이시며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정치원로이십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적인 업적은 백승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선군혁명령도사에 길이 빛날 만년재보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원대한 대고조구상과 전략을 펼치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조국땅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무후무한 강행군실록을 새기면 새길수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에 한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소동과 악랄한 봉쇄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에 길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세계최첨단을 돌파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온 세계에 위용을 떨치고 오늘은 경제강국건설에로 용을 쓰며 줄달음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였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눈앞에 바라보는 결정적계선에 들어섰으니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영광과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은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강성번영의 새시대, 김일성조선의 새 승리의 100년대를 빛내여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포근히 안아 은정깊은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 력사의 매 단계마다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적모범을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토록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하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더없이 귀중한 강령적가르치심으로 총련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희망의 2012년에로 함께 가자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대통로를 펼쳐주시여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걸음걸음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우리모두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과 애국충정은 더더욱 뜨거워지기만 합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가슴가슴에 맥박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오직 한길에 총련애족애국위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사업분야에서 공세를 벌려 총련사업을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움으로써 올해를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개척에서 길이 추억할 력사적인 해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주체의 신념과 애족애국의 전통을 깊이 심어주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새로운 전성기에 맞는 면모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중등교육실시 65돐, 조선대학교창립 55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새 세대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역으로 내세우고 동포상공인들을 애족애국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새로운 전성기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동포되찾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왕성한 문화체육활동으로 동포사회에 민족적정서와 랑만이 차넘치게 하며 동포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의 생활지원, 봉사복지활동과 재일조선인의 지위획득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한데 모아 조국의 인민생활향상과 농업생산,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특색있게 벌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동족대결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거족적인 투쟁에 합세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 조일평양선언리행에 나서도록 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친선과 뉴대를 두터이 하는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걸음도 같이하여 전조직이 공격정신으로 애족애국의 보폭을 맞추어 올해를 새로운 전성기개척의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겠습니다.

이역에서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간절히 바라고바라는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21세기 인류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0(2011)년 2월 16일 일본 도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대표와 지부성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 개막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15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나라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나가자!》라는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형상한 그림판과 《자주》, 《평화》, 《친선》,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개막식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최룡해동지와 강능수내각부총리,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들,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프랑스, 체스꼬의 휘거선수들이 관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였다.

박명철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열리는 이번 축전은 체육인들사이의 단결과 협조, 체육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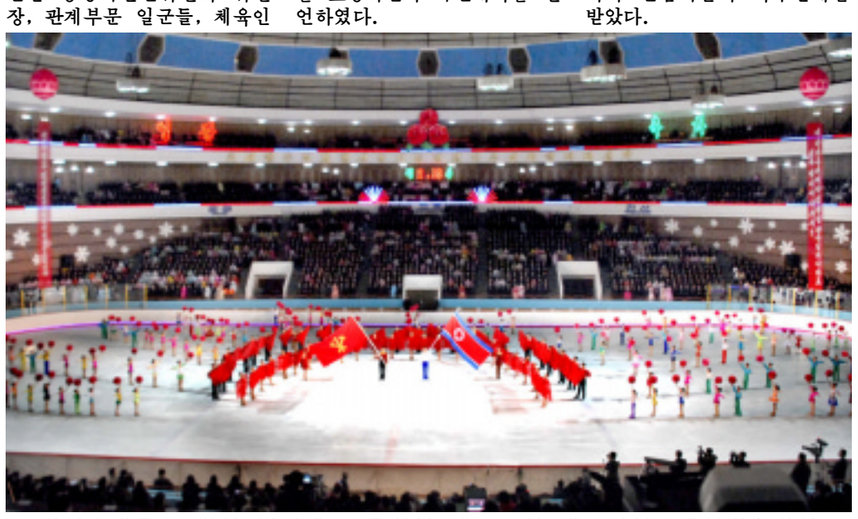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게양되였다.

우리 나라 휘거선수들이 출연하는 《2월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 개막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축원의 꽃보라》, 《꼭 오실거야》, 《공격전이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의 종목들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모범출연이 있었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휘거선수들은 세련되고 재치있는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이 개막되였다. —빙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2.16경축 수중발레모범출연
《영원한 2월의 봄》 진행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2.16경축 수중발레모범출연 《영원한 2월의 봄》이 15일 창광원 수영관에서 진행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영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리태남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명철체육상,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모범출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축하단들,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축원의 꽃보라》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모범출연이 시작되였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희세의 선군령장을 우러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출연자들은 김정일화를 형상한 꽃송이들로 물우에 대형꽃바구니를 펼쳐보였다.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률동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을 보여주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공격전이다》, 《혁명을 위하여》 등의 노래선률속에 박력있는 기교동작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여러가지 대형변화와 뛰기기, 솟구치기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수중발레동작으로 종목들의 사상주제적내용을 훌륭히 반영한 모범출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2.16경축 수중발레모범출연 《영원한 2월의 봄》이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2.16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도, 시, 군에서 진행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2.16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도, 시, 군에서 진행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 책임일군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들은 민족사에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의 지도사상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사상, 선군혁명리론을 정립체계화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백승의 보검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건설과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여 우리 당이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위력을 떨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65돐을 맞이한 지난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정하시고 전당적, 전국가적총공세를 벌려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합니다.》

보고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경공업과 농업,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전당을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민간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인칭송의 꽃바다 설레이는 경사로운 2월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로 피운 태양의 꽃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장병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명실공히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입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5차 김정일화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불태우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끝없이 물결치는 축원의 꽃바다!

올해에 15번째 뜻깊은 년륜을 새기고있는 이번 축전장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필승의 총대로 억세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축전이 진행되고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축전장의 정면에 자리잡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전시대를 돌아보며 숭엄한 격정을 금치 못한다.

위대한 선군령도로 천만군민을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에로 현명하게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환하신 영상, 품위있게 형상된 최고사령관기와 당기, 람홍색공화국기, 《결사옹위》의 힘있는 글발, 혁명의 수뇌부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부대장병들의 열화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붉게 피여난 천수백상의 아름다운 김정일화, 선군으로 존엄높고 미래가 창창한 내 나라의 환희로운 현실을 벅차게 되새겨주는 다채로운 장식물들…

보면 볼수록 전시대는 불세출의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더없는 영광, 그이의 손길아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위훈떨치는 우리 인민군대가 있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시대의 진리를 참관자들의 심장마다에 초석같이 굳게 다져주고있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군관 서경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없이 붉고붉은 저 아름다운 태양의 꽃, 불멸의 꽃들마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대오, 무적필승의 대오로 억세게 자라난 우리 부대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정이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그처럼 모진 강추위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수백상의 김정일화를 더 피워내고 전시대를 특색있게 만들어 축전장을 환희롭게 장식한 부대의 성과가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9월 부대온실에 수십개의 류다른 지함을 실은 차가 도착하였다. 멀리 떨어져있는 초소의 병사들이 보내여온 지함들이였다. 정히 포장한 지함들을 펼쳐보는 온실일군들과 원예사, 재배공들은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수 없었다. 그속에는 김정일화재배에 절실히 필요한 부엽토들이 가득 담겨져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매 지함들에는 초소군인들이 쓴 편지들도 있었다.

—우리의 마음도 합쳐 태양의 꽃, 불멸의 꽃을 더 아름답게, 더 많이 피워달라.

—다음해에 열리게 될 제15차 김정일화축전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우리들의 절절한 그리움, 그이의 병사된 우리들의 크나큰 행복과 영예를 가슴벅차게 터쳐달라.

…

진정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바로 이런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뜨거운 충정의 심장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붉은 꽃잎들을 펼친 태양의 꽃이였다.

김정일화재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준 부대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부대의 전체 장병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더 붉고 더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피워내기 위하여 헌신과 열정의 낮과 밤을 이어온 온실일군들과 종업원들,

부대에서는 전시대를 훌륭히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하였다.

부대적인 전시대형상도안창작경연이 벌어졌다. 일군들로부터 군관, 병사들과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참가하는 경연과정에 수많은 도안들이 나왔으며 그에 대한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이번 축전을 특색있게 장식할수 있는 훌륭한 전시대형상도안이 완성되고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다.

참으로 전시대는 백두의 산악과도 같이 억세인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가장 순결한 량심과 혁명적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부대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로 충만되여있다.

태양의 꽃 만발한 2월의 봄이 영원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갈 우리 군대의 신념과 의지는 영원할것이며 그와 더불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포성이 장엄하게 울려퍼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리충성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끄떡없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에서

어버이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이역의 아들딸들이 심장으로 가꾸어온 불멸의 꽃들도 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전시대의 중심에 삼가 모시고 붉게도 피여난 한상한상의 김정일화…

황홀하게 붉게 타는 꽃잎은 마치도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런가. 붉은 꽃송이를 둘러싸고 활짝 펼쳐진 푸르른 잎새는 이역의 모진 칼바람속에서도 태양을 받들어 조국과 숨결을 같이해나가는 총련동포들의 충정이런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고 참다운 조국이 있을 때 민족도 빛나고 개인의 운명도 영예도 빛나는것이다.》

꽃은 자연의 산물이다. 허나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들을 두고 어찌 자연의 산물이라고만 말할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불멸의 꽃의 충실한 뿌리가 되고 억센 줄기, 아름다운 꽃잎이 되였다. 바다건너 머나먼 이역땅에서 피워올린 불멸의 꽃이여서, 이역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황홀하게 피여난 꽃이여서 사람마다 걸음을 뗄수 없게 한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닿아있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김주순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들에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며 조국과 숨결을 같이해온 총련동포들의 투쟁의 걸음걸음이 불멸의 꽃송이마다에서 안겨온다. 지난해 일본반동들은 총련을 와해시키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총련의 재일동포들은 지난해 5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2차 전체대회를 성대히 열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에 주신 강령적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과 더불어 2012년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을 결의하였다.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총련조직을 빛내여온 나날에 동포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던 절절한 그리움과 경사스러운 2월에 삼가 드리는 축원의 마음을 전시대의 푸르른 잔디며 불멸의 꽃들이 속삭여주는듯싶다.

전시대에 형상된 천리마동상과 울림폭포의 장쾌한 모습에는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함께 열어제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맹세가 비껴있다.

우리는 전시대앞에서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인 리명유시즈오까현본부 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일화축전장에 처음으로 온 그는 참으로 격동되여있었다. 그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속에서도 현에서는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끝까지 우리 학교를 지켜냈다고, 진보적인 일본인사들과 일본인민들도 총련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장군님은 재일동포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이 열렬히 칭송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시라는것을 축전장을 꽉 채우며 피여난 불멸의 꽃송이마다에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동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있듯이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총련은 끄떡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향해 파도를 헤가르는 《만경봉—92》호의 형상은 뜨겁게 말해주고있었다.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어버이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은 이 시각에도 조국으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으로 달려오고있음을.

본사기자 정영화

다함없는 충정을 담아

경공업성 일군들과 정무원들

참관자들은 경공업성전시대의 류달리 크고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누구나 이렇게 묻는다.

《어떤 비료를 줍니까?》, 《꽃잎이 류달리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경공업성은 지난 시기 불멸의 꽃축전들에 참가하여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였다.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속에서도 훌륭한 꽃을 피우기까지에는 확실히 그 어떤 비결이 있는것 같았다.

불멸의 꽃에 바쳐진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달려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안타까와 온실을 찾아 한상한상의 김정일화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온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였다.

꽃송이마다에는 경공업부문을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마음들이 아름답게 비껴있었다.

충정의 모습들은 경공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원예사인 애젊은 처녀 김련옥동무의 심장도 격동시켰다.

그는 김정일화를 키운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낮과 밤을 이어가며 정성을 기울이였다.

류달리 크고 아름다운 꽃은 이렇게 어버이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에서 기어이 승전고를 높이 울릴 불타는 마음들에 받들려 피여났다.

글 및 사진 김철우

불타는 맹세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바로 여기에 인생관의 근본핵이 있으며 삶의 참된 가치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다.》

붉게 피운 김정일화로 형상한 펄펄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 그 량쪽아래에 올해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한 여러가지 글발들로 두드러지게 부각된 원형단, 불멸의 꽃을 떠받들고있는 다수확품종의 벼종자, 감자종자, 콩종자들…

전시대가까이로 다가서는 첫 순간 어느 단위 전시대인가 하는것이 알렸다.

—여러가지 다수확품종을 더 많이 육종하고 영농방법과 기술을 부단히 혁신해야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에서 변혁이 일어난다. 그러자면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한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행복도 그 길에 있다.

이것은 계영삼동무를 비롯하여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농업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시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어떻게 하면 전시대에 농업과학자들의 가슴속에서 불타고있는 충정의 열의를 함축된 형상으로 진실하게 담겠는가.

일군들속에서 여러차례의 형상도안협의가 진지하게 벌어졌으며 각 부서들에서도 좋은 착상들이 련이어 나왔다.

그렇게 되여 펼쳐지게 된 전시대였다.

전시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에게는 구태여 해설이 필요없었다.

자랑찬 과학기술성과로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며 선군조국을 하루빨리 부강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전변시켜갈 전체 농업과학자들의 심장의 맹세를 전시대가 다 말해주고있기에…

백성근

보답의 열정, 드높은 결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전시대도 이번 축전장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끄는 특색있는 전시대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더 높은 세멘트증산으로 받들어나갈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전시대에 펼쳐진 불멸의 꽃송이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 1월 5일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여 은정어린 친필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심장을 끓이며 올해 첫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축전장으로 달려온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아름답게 피여난 300여상의 김정일화, 전시대웃부분에 형상한 당기발과 《강성대국 향하여》라는 힘있는 글발, 희천발전소와 현대적인 살림집, 세상사람들이 《김정일식 산업건설의 본보기》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모형…

꽃들도 하나와 같이 크고 아름다울뿐아니라 모든 장식물들에 강성대국건설에서 큰 몫을 하고있는 기업소의 본분을 다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결의가 력력히 비껴있다.

볼수록 불멸의 꽃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바쳐온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정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기업소에서는 이번 축전과 관련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여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린 전시대도안을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축전준비사업을 다그쳐나갔다.

꽃재배과정에 사소한 애로와 난관이 있을세라 온갖 성의를 다해온 량현수, 송영남동무들과 불리한 일기조건을 이겨내며 김정일화재배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지성과 노력을 기울여온 리혜영동무를 비롯한 온실종업원들, 불멸의 꽃을 더 잘 피워달라며 꽃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가지고온 김경희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끝이 없다.

이런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깃들어있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전시대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장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깨끗한 마음도 깃들어있기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그토록 붉고 아름다운것이다.

본사기자 전철호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15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와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무관들의 나라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총련에서

경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14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총련중앙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 동포상공인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일본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지난해 조국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를 이어가고계시는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인민들이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데 대해 피력하였다.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시대의 추세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조일사이의 대화가 실현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정부가 부당한 반공화국제재를 계속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구실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위한 수속을 정지시킨것은 조선인민앞에 지닌 일본의 력사적, 도의적책임에 비추어보아도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재일조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재중동포들

경축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의 경축모임이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용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모임장소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의 축전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감상하였다. 이어 경축연회가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평양시내 화교들의 노래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평양시내 화교들의 노래모임이 1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화교련합회 중앙위원회 일군들, 평양시내 화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를 비롯한 노래들을 감명깊게 불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사랑하자 나의 조국》,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노래들도 잘 불렀다.

청진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15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시에라레온국적선박 《뉴훈춘》호, 투발루국적선박 《화지—6》호의 선장, 선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대경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은정어린 선물을 실은 비행기들이

서해의 섬들로 날았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14일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 생겨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실은 비행기들이 서해의 외진 섬들인 서도와 자매도, 석도, 수운도, 랍도, 대화도, 가도, 탄도에로 날아갔다.

동음을 울리며 비행기들이 섬주변상공에 이르자 섬주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이 터쳐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가로 울려퍼졌다.

해마다 비행기를 맞이하고있는 그들은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고 위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등대원들을 비롯한 섬주민들은 격정에 넘쳐 우리는 비록 외진 섬에 있어도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곁에서 살고있다, 섬마을아이들도 뭍에서와 꼭같이 명절을 즐겁게 쇠라고 비행기를 띄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이 땅 어디에서나 행복이 꽃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등대불을 더 밝게 비치며 조국땅의 한부분인 섬을 훌륭히 꾸려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끝없는 기쁨속에 선물을 받아안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날 맹세를 다짐하였다.

2월의 명절과 더불어 서해의 하늘에 이어지는 사랑의 항로는 숭고한 후대관이 어린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이란대통령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접견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10일 조인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하며 그이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한다.

우리는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

용감하고 근면한 조선인민이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한덕수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가족일행 도착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한덕수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가족일행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국공안부장일행 귀국

【평양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인 맹건주공안부장과 일행이 1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최중화부부장을 비롯한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력사에는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탁월한 사상리론과 뛰여난 정치실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특출한 위인상에 한없이 매혹되여 그이를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21세기의 태양》,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자》, 《천출위인》, 《세계정치원로》로 열렬히 칭송하며 높이 우러러따르고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선군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인류의 크나큰 행복이고 최대의 영광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자주시대를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21세기의 태양, 그분은 천출위인 김정일장군이시다.

이것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가 21세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만민의 경모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태양, 위대한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력사의 물음에 단마디명창으로 한 대답이다. 그가 이런 대답을 스스럼없이 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친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저저마다 《김정일장군님은 21세기의 태양이시다.》,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태양과 같이 밝은 빛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고 태양과 같이 뜨거운 열로 인류를 품어주시며 태양과 같이 위력한 힘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분이시다.》라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21세기의 태양》,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자》,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이 심장의 웨침,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매혹된 한없는 격정, 절세의 위인을 21세기의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 끝없는 환희의 토로이다.

령도자에 대한 매혹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인은 사상과 령도에서도 위대하고 업적과 풍모에서도 위대하여야 한다.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자로 받들어 모시는것은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위인이 지녀야 할 모든것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기때문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령도자의 업적도 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평가된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런 걸출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사상사에 영원불멸할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여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력사의 광풍이 몰아치던 20세기 말엽, 그때 세계는 사상리론의 영재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다시한번 깊이 절감하였다. 당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예상밖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을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패재를 부르며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나라들과 인민들은 위구심과 실망감에 빠져들었다. 이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과 반사회주의공세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인류가 갈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갈길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길이 환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이 명철하게 론증되였다. 이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승리의 기치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환성을 올렸다.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사회주의의 구원자이시다.》, 《김정일동지는 21세기 사회주의운동을 이끄실 태양이시다.》…

국제사회계는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시고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세계위인사, 정치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거대한 인류사적공적이라고 찬탄해마지 않았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크나큰 행운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되였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탁월한 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비범한 령도에서 뚜렷이 과시된다. 오늘 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제정치무대에서 절대적권위를 지니고 진보적인류를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령도의 거장, 뛰여난 실천가로 공인하고있다.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세계자주화위업과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력을 따를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는 이미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서 그것을 확신하였다.

주체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70개 공산당, 로동당, 진보적정당대표들이 서명한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세상에 발표되였다. 평양선언의 발표로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반사회주의광풍을 몰아오던 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일시적인 위기와 혼란상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진군을 개시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선언에 서명하는 진보적정당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일시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고 세계정치흐름은 크게 달라지게 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정당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평양선언의 채택과 사회주의운동의 재건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대한 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를 령도의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벌가리아공산당(맑스주의자) 중앙위원회 집행리사회 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재생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지켜나가자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한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승리의 상징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며 따르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천출위인에 대한 탄복—

최세의 대성인

주체79(1990)년 8월 우리 나라의 한 일군이 불치의 병에 걸려 생사기로에서 모대기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죽었다는 보고보다도 하루라도 더 앓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싶다고 하시며 림상경험이 많은 다른 나라 의사들을 데려오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다른 나라 명의들이 우리 나라에 오게 되였다. 그들은 우리 의사들과의 합동하에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치료에 좋다는 약들은 다 투입되였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어구에 놓여있던 환자는 보름만에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소생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동지애, 인간애는 외국의사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은 한 인간의 병을 고치자고 외국의 의사들까지 부르도록 하신 그 인덕에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령도자를 잘 만난 선생이 부럽다고 하면서 《약값이 비싸 말만 듣고 아직 한번도 써보지 못한 약을 선생에게 써보면 어떨가 하여 조선의사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은 즉석에서 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고가약이란 고가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조선의사들의 말이 선생의 병력서를 세상에 광고하여 좋다는 약은 다 사왔다고 하는데 정말 김정일동지는 억만금보다 전사들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대성인이십니다.》, 《환자의 입맛을 돋구려고 특별비행기를 보내여 신선한 남방과일을 침상에 놓아주는 령도자는 세상에 오직 김정일동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 사랑의 태양이십니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태양과 같으신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으면서 그이의 천재성과 위인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된 외국의 벗들가운데는 로씨야기술유리과학연구소 총지배인 쏠리노브도 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피력하였다.

《그이께서는 1995년 7월에 나와 우리 일행을 무려 55분간이나 만나주시였다.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접견은 흔히 격식을 차린 공식적인것이 상례이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벗으로, 친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게 말씀하시는 천부의 재능으로 우리가 질문한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한 넓고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였다. 꾸밈이 없는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 때로는 마음속을 환히 드러내놓는 호탕한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였다.

담화가 끝나고 그이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와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나는 온몸이 해빛에 휩싸인듯 한 심정이였다. 태양은 그 누가 설명해주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그 존재자체의 비길데 없는 위대성으로 하여 만민으로부터 칭송되는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진정 태양과 같은분이시다.》

인간사랑의 화신

주체88(1999)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의 한 손님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로 말하면 이전 쏘련시기에 씨비리지방의 어느 주당 제1비서로 있다가 당중앙위원회에 소환되여 사업한 일군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손님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손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그는 자기의 온넋이 장군님께 끌리는것을 느꼈다. 이러는 그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번에 올 때에는 부인과 가족을 다 데리고오겠다는것을 약속하자고 하시였다. 너무 뜻밖이여서 손님은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꼭 데리고오라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것 같아 걱정하는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비행기표도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담화가 끝날무렵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앞으로 평양에 제집에 오는것처럼 마음놓고 자주 오라고, 그래야 우정도 더 두터워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숙소에 돌아온 그는 우리 일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김정일동지는 자질과 덕망이 신화적존재같고 인정미가 태양처럼 뜨거운분이시며 세계의 숭고한 정서를 한몸에 다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성인, 특출한 위인이십니다. 그이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환히 들여다보시고 개인의 희망과 일신상의 문제까지 다 헤아려보시며 은정을 베푸시는 인간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선물에 깃든 축원의 마음

2003년 2월 12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대사관에서는 당시 로씨야대통령 뿌찐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축전과 선물을 전달하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의식에서 로씨야대사는 뿌찐대통령이 보내는 축전을 랑독한 다음 그가 장군님께 올리는 오를로브종선물말 3필을 전달하였다. 오를로브종은 로씨야의 특산종으로서 령리하고 용맹하며 힘이 센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경마용말들중의 하나로 공인된 유명한 말이다.

자료에 의하면 로씨야는 이 말들이 다른 나라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있으며 설사 다른 나라에 준다고 하여도 후대를 남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런데 뿌찐대통령이 우리 장군님께 선물로 올린 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것들이였다.

어떻게 되여 로씨야지도자가 경애하는 장군님께만은 그러한 례외적인 특별호의를 베풀어드리였는가.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당시 조선반도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정식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로씨야정부가 외무성 부상을 우리 나라에 대통령특사로 보내겠다는것을 제기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정부의 제의를 쾌히 승낙해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찾아온 로씨야대통령특사를 친히 접견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접견석상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이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이면서도 일관한 립장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도에 대하여 철의 론리로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한생을 외교활동에 종사해온 로씨야대통령특사였지만 그는 우리 장군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받아안으며 세계정치원로이시며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예지, 철의 의지와 담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귀국후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그대로 뿌찐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와 로씨야의 모스크바,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거듭 상봉하면서 그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던 뿌찐대통령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축전과 함께 오를로브종말들을 선물로 올리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선물전달식에서 로씨야대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 나라에서는 개선장군이 백마를 타게 되여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뿌찐대통령이 오를로브종백마를 선물로 마련하여 올린데는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모든 일에서 승리와 성과만을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선물말호송원들은 자기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씨야의 특종인 오를로브원종말가운데서 제일 좋고 새로운 환경에 길들이기 가장 편리한 나이의 말들을 특별히 고르느라고 고심하였고 선정한 후에는 정성다해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일생 말관리에 종사하는 자기들이지만 이번과 같은 영예로운 지시를 받고 수행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 외국인의 심장의 웨침

20세기 90년대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대통령이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위한 담보서한을 보내온 후 미국의 한 연구소의 고위연구원 솔로베크가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한 말이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령도자의 령도예술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적이며 부러움을 넘어 매혹적이고 훌륭함을 넘어 위대하다. 참으로 그분은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다. 왜냐하면 동서량극이 해체된 오늘의 세계에서 초대국인 미국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있는분이 다름아닌 김정일령도자이시기때문이다. 사실상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미국의 코를 꿰여잡고있는분은 김정일령도자이시다. 그분이 잡아끄는대로 이리저리 끌리는것이 오늘날 미국의 비극적운명이다.

나는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유사이래 출몰한 위인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출생관계, 교육정도, 세계관, 취미 등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규정할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직업적본분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투시하고 관찰해왔다. 그 결과에 그들이 서로가 구별되는 우단점을 가지고있지만 종당에는 몇가지 류형에 국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였다. 비상한 두뇌형, 무사적인 장군형, 자비적인 인덕형, 이것이 바로 내가 수년세월을 바쳐 정립해놓은 위인형이다.

그렇다면 김정일령도자는 어떤 위인이신가. 비상한 두뇌형인가. 아니 그분은 비상함을 초월하여 그야말로 신비적인 두뇌형이다.

그렇다면 무사적인 장군형인가. 아니다. 그분의 담력과 배짱은 무사의 기질을 릉가하여 초인간적이다.

하다면 자비적인 인덕형인가. 그것도 역시 아니다. 그분의 인덕은 〈하느님〉의 자비를 몇백번 더하고더해도 결코 비기지 못할 태양의 인덕이다.

과연 김정일각하는 어떤 형의 위인이신가. 세계최대의 능력을 가진 우리 연구소의 콤퓨터도 이에 대답을 못하고있다. 오늘날 미국의 비극적운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라고 카터는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일성주석은 이 세 대통령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위인이시다. 이것은 카터의 개인적인 격찬에 앞서 20세기의 칭송이다.

김정일령도자는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대위인이신 김일성주석형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형의 위인 김정일령도자, 정녕 그분은 신비적인 두뇌와 담력, 태양의 인덕과 함께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겸비하지 못했던 도덕의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위인이시다.》

이것은 천출위인에 대한 탄복과 매혹에서 우러나온 솔로베크의 심장의 웨침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뻬루인사들이 7일과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올렸다.

뻬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서기장 엘레아싸르 라모스 로아르떼는 《김정일, 현시대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본보기로 되고있는것은 새 세대들을 조선인민의 력사적위업과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의 하나는 새 세대들을 인민들의 투쟁전통으로 교양하지 않은데 있다.

결과 새 세대들이 빈궁과 굶주림, 착취와 압박이 없는 물질적안락속에서 새 사회를 위해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선렬들의 투쟁과 희생을 망각하였다.

조선에서는 새 세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실현해나갔다.

혁명선배들과 영웅들을 존대하는 조선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김일성주석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그이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세인의 칭송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리할것이며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는 글에서 2월 16일은 인류공동의 명절이다, 이날을 맞으며 세계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렬거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7일과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시고 기념글들을 올렸다.

홈페지는 《김정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인민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와 제재책동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상상할수 없다.

홈페지는 《김정일령도자의 특별초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랑의 전설을 낳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면서 검덕의 광부들과 안해들을 평양에 불러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고 홈페지는 강조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뻬루단체들이 1일과 4일 볼레찐을 발행하였다.

뻬루인민녀성동맹은 볼레찐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데 대하여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볼레찐은 김정일령도자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뻬루 김일성주의연구소조는 볼레찐에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들과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시대의 기치인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 《자주성을 견지함에 있어서 세계의 귀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볼레찐은 글들에서 현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고무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게 하는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은 오늘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념원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볼레찐은 국제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활동이 강화되고있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칼레크 자만 부이얀이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주체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여나가신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이 있으며 강대한 정치군사적위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이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유전개발사업

이란의 서남부지역에 있는 다크호빈유전개발 2단계공사가 8일에 완공되였다.

그리하여 유전의 하루생산능력이 이전의 5만bbl로부터 16만bbl로 대폭 늘어나게 되였다.

빛섬유해저케블 부설공사 추진

아프리카의 서부지역 나라들이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빛섬유해저케블부설공사를 추진시키고있다.

대륙의 서부해안을 따라 부설되는 이 해저케블의 총길이는 1만 4 000km에 달한다.

지역나라들이 이 공사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일자리 조성

칠레정부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8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피해지역들에서 일자리조성사업이 적극 벌어졌다.

중국에서 승용차생산

공업생산 증가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4.2% 증가되였다.

이 기간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지하철도 건설

빠나마의 수도에서 최근 첫 지하철도건설공사가 시작되였다.

총연장길이가 13.7㎞에 달하는 이 지하철도건설공사는 3년동안 진행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정부에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수출 증가

필리핀에서 지난해 12월에 수출액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25.3% 증가하였다.

이 기간 특히 전자제품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경제 장성

브라질에서 지난해 경제가 7.5% 장성하였다.

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폭설피해

일본에서 많은 눈이 계속 내려 피해를 입고있다.

5일 일본 NHK방송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번 겨울철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폭설에 의한 사망자수가 3일현재 101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폭설로 나라의 농업부문과 어업부문에서 입은 손실액은 137억¥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ㄱ-11032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